

2월 전북 수출, 4억6553만 달러

전년 동월대비 6.3% 감소... 정밀화학원료 수출 급감, 코로나19 영향은 3월부터 나타날 듯

2020년 전북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6.3% 감소한 4억 6553만 달러로 집계됐다. 수출감소폭이 전월(-17.5%) 보다 둔화되었으나, 이는 작년 설연휴가 2월이었기 때문에 조업일수가 전년 보다 3일 증가한 기저효과로 분석된다.

26일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이강일)와 전주세관(세관장 진운웅)이 발표한 "2020년 2월 전라북도 무역동향"에 따르면, 전북 수출은 2016년 4월 이후 가장 저조한 수출실적을 기록했다. 코로나19의 영향이 일부 발생했지만, 도 수출1위 품목인 폴리실리콘의 수출 급감이 수출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대중국 수출은 전년 대비 19.8% 감소한 8,212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건설광산기계(\$972만, -20.3%), 동제품(\$894만, -35.5%) 등 감소한 품목과 종이제품(\$1,469만, 89.1%), 플라스틱제품(\$315만, 46.3%) 등 증가한 품목도 있어 코로나19의 영향이 본격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폴리실리콘을 포함한 정밀화학원료(\$1,078만, -52.4%) 수출 급감이 대중국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다.

국가별로는 중국 외에 일본(\$2,957만, -12.9%), 벨기에(\$1,406만, -14.5%)

향 수출이 감소한 반면, 미국(\$8,509만, 25.5%), 베트남(\$2,733만, 14.2%), 인도(\$1,660만, 95.4%) 등으로의 수출은 증가했다.

2월 가장 많이 수출된 품목은 건설광산기계로 중국, 미국 등 주요시장에서 수출이 줄며 전년 보다 2.4% 감소한 4,318만 달러를 기록했다. 정밀화학원료(\$3,723만, -22.3%), 자동차(\$2,862만, -43.8%), 자동차부품(\$2,354만, -34.0%), 동제품(\$2,046만, -11.4%) 등은 수출이 감소했고, 합성수지(\$3,476만, 4.2%), 농기계(\$2,751만, 89.5%), 농약 및 의약품(\$2,128만, 45.5%) 등의 수출

은 증가했다.

이강일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장은 "2월까지의 기수주 물량의 수출이 이루어져 코로나19로 인한 수출감소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본부장은 "중국 시장은 회복되고 있으나, 중국을 거쳐 최종 수요처인 미국, 유럽 등에서 바이러스 확산이 심화되고 있어 당분간 수출기업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해외시장, 물류, 환율 등 종합적인 정보제공 및 비대면 방식의 수출 지원사업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북전주농협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적기영농 지원과 자재 구매 편의를 위해 영농자재센터를 새롭게 단장했다.

영농철 농가 실익 지원 '총력'

북전주농협, 영농자재센터 개소

북전주농협(조합장 이우광)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적기영농 지원과 자재 구매 편의를 위해 영농자재센터를 새롭게 단장했다.

북전주농협은 덕진구 반월동에 위치한 농협농산물직판장 2645㎡(800여평) 부지에 연면적 318㎡(96평)의 자재 창고와 마트식 진열구조로 리뉴얼하고 26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매장에는 비료·농약 등 농자재와 일반농기구, 전기 자재, 관수자재, 분무자재, 일반용품등 약1800여 품목이 효과적으로 분류돼 전시 판매 중에 있다. 개장 이후 지금까지 일일 방문객 250여명, 일 매출 2000여만원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 매출 신장을 보이고 있고, 평균 5~10% 할인 판매로 조합원들로부터 호평을 얻고 있다.

북전주농협 영농자재센터 매장에서 만난 여성조합원 이정례씨(72·전주 덕진구 장동)는 "판매장이 백화점 수준"이라며 "품목이 다양하고, 가격도

저렴해서 이용에 매우 편리하다"고 말했다.

김광우 경제상무는 "북전주농협은 2019년 3월 조합장 취임부터 줄곧 농가의 실익지원을 위해 경제사업 확대에 힘을 쏟아왔다"며 "그 결과 12월에 농협중앙회로부터 농업인실익증진사업 지원 대상에 선정돼 5000만원의 비용 보조와 함께 조합원 편의 사업을 손조롭게 확대 할 수 있었다"고 귀띔했다.

한편 북전주농협은 영농자재센터 개소에 이어 향후 이곳에 농기계센터·농협하나로마트 판매장, 클린주유소, 365자재와코너 등을 한곳에 모은 통합경제사업장도 구축한다는 복안을 갖고 경제사업에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중이다.

이우광 조합장은 "조합원들과 고객들이 경제사업장과 하나로마트 판매장을 편리하게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직과 시스템을 개선해 농가소득 향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협동조합 정신으로 코로나19 극복 노력

전북 중기 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는 26일 전북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이사장협의회 회장단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라북도 농가(화훼, 농산물)돕기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북지역본부는 전북레미콘공업협동조합, 전북합성수지공업협동조합 등 전북지역 40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공문을 보내 각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주관이 되어 전체 2천2백여 조합원사들과 함께 전북 지역 꽃과 농산물 사주기를 진행할 계획이다.

두안정 전북중소기업회장은 "최근 코로나 19 확산으로 지역상권 침체와 각급 학교 개학연기 등으로 화훼농가, 급식업체, 여행업체 등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전북지역 협동조합과 조합원업체도 어려운 형편이지만 상부상조하는 협동조합 정신을 발휘해 꽃 사주기, 농산물 구입 등 작은 실천들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계절 바뀌는 시기, 한방차로 호흡기 건강 챙겨요

농진청, 오미자·맥문동 등 이용 한방차 소개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용작물인 오미자, 맥문동, 감초, 도라지를 이용해 환절기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한방차를 26일 소개했다.

약용작물로 끓인 한방차를 마시면 인체 면역력을 높이고 호흡기계 감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오미자 맥문동 차는 기침을 완화하고 기침과 목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효능이 있다.

오미자는 성질이 따뜻하고 맥문동은 성질이 차서 반대되는 듯 비록이지만, 잡액을 생성해 건조한 목을 촉촉하고 청결하게 해 주고 기침을 완화하는 효능은 비슷하다. 오미자는 지속적인 기침으로 밖으로 새어나가는 기운을 체내로 수렴해주며 맥문동은 열을 내려 기침과 발열이 동반된 증상을 완화시킨다. 오미자를 우려낸 물에 심을 제거한 맥문

동을 넣고 20분간 끓인 후 차로 마신다. 오미자를 물에 넣고 끓이면 쓴맛이 우러나올 수 있으므로 끓인 물에 오미자를 넣고 천천히 우려내는 것이 좋다.

오미자, 맥문동에 인삼을 더하면 '생맥산'이라는 보약이 된다. 기운이 부족하고 추위를 타는 경우에는 인삼을 넣어 복용하지만, 목에 열이 많은 경우에는 인삼을 황기로 대체해 끓인다.

감초 도라지 차는 호흡기에 발생한 염증으로 목이 아플 때 통증을 완화하는 효능이 우수하다. 이 한방차는 동의보감에 '감갈탕(甘桔湯)'으로 수록된 처방으로, '찬 기운이 몸속으로 들어와 목구멍이 음식물 넘겨거나, 뱀지 못하고 아픈 것을 치료한다.'고 전한다. 현대에도 급성염성전염병, 편도염, 인후염, 천식 등에 처방되고 있다. 감초는

열을 내려주고 독을 풀어주는 작용이 있어 열이 나면서 목이 아픈 것을 치료한다. 도라지는 매운 맛으로 목이 막힌 듯이 아픈 것을 부드럽게 풀어주기도 한다. 기존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감갈탕이나 이를 응용한 처방은 감산화와 항염증, 면역증강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감초와 도라지를 1대 3 비율로 준비해 감초를 먼저 우려낸 후 도라지를 넣어 끓인다. 도라지를 너무 오래 끓이면 쓴맛이 많이 우러나고 사포닌 성분으로 인해 거품이 생기므로 10분만 끓인다.

김동희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이용팀장은 "발달기운 차가 큰 환절기 면역력을 높이는 한 가지 방법으로 한방차를 추천한다"라며 "단, 약용작물은 호흡기 건강을 유지하는 보조요법이므로 상세한 진단과 처방은 전문가에게 받기를 권한다"라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군산 회현농협 하나로마트 신축 개점 | 30일까지 초특가 할인

군산 회현농협(조합장 김기동)이 하나로마트를 신축하고 지난 25일부터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별도의 개점식은 열지 않았다.

총 사업비 약12억원이 투입된 회현농협 하나로마트는 467㎡규모(141평)로 농산물·생필품·정육 코너를 갖추고 있으며 연말까지 로컬푸드 직매장운영을 목표로 농가조직화 및 생산자 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다.

김기동 조합장은 "하나로마트를 단순한 상점을 파는 곳이 아닌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소통공간으로 만들어 지역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 회현농협 하나로마트 전경. 한편 회현농협 하나로마트는 신축 및 사은품 증정행사를 진행한다. 개장기념으로 30일까지 초특가 할인 /김윤상 기자

전주시 출산장려 위한 금융바우처 지원 연장

전북은행, 내년 1월까지... 이등수당 수령 고객 선착순 1000명에 2만원 지급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전주시의 출산장려 정책에 동참하고자 지난 2019년 1월 맺은 '전주시-전북은행 금융바우처 지원 업무협약'을 2021년 1월까지 연장한다.

이번 업무협약 연장으로 전주시에 거주하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명의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으로 아동수당을 수령할 경우 선착순 1,000명에 한해 출생 축하금 2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전주시 출산장려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라고 전하면서 "앞으로도 전북은행은 지역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며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벤트 관련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jbbank.co.kr) 및 고객센터(1588-4477)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새만금개발공사, 사업자 공모 시행... 오늘부터 제안서 접수

새만금개발공사(사장 강광문)는 새만금 산업연구용지 동측 일원에 조성되는 3구역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사업자 공모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업제안서는 27일부터 5월 11일까지 새만금개발공사에 내방해 접수하면 된다.

이번 공모는 일정 자격을 갖춘 업체만 참여 가능하며, 컨소시엄의 경우에는 각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가 1개 이상 구성원으로 참여해야 한다.

사업제안자는 2019년 12월 공사가 시행한 '새만금 육상태양광 3구역 발전사업 컨설팅 공모'에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여야 하고, 본 공모일로부터 과거 10년간 국내 태양광발전소 준공설적누계가 30MW 이상인 종합건설업체여야 한다.

또한 본 공모일로부터 과거 10년 이내에 개별 건물 1,000억원 이상의 프로젝트파인싱(PF) 사업에 참여했거나 금융을 주선한 실적이 있는 업체여야 하며, 시공능력 평가액이 본 사업에 소요되는 투자비 이상인 업체여야 한다.

이울러 공사는 지역인력 채용, 지역기자재 사용 등 지역상생방안을 평가표에 반영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으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겠다는 목표다.

강광문 사장은 "새만금 육상태양광 3구역 발전사업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대비 같은 사업이 되는 것이 공사의 바람"이라며 "본 사업을 통해 새만금이 대한민국 재생에너지의 중심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공사는 2019년 10월에 (주)새만금희망태양광 설립으로 추진 중인 육상태양광 1구역 발전사업과 함께 2022년 1월에는 3구역도 상업운전을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공사 홈페이지(www.sdm.or.kr)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동김제농협 2019년 NH농협 손해보험 연도대상

동김제농협(조합장 최진오)은 지난 2019년도 NH농협 손해보험 평가에서 사무소부문 그룹 1위로 연도대상, 개인부문에서는 최문임 상무가 은상을 수상하여 조합원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다.

최진오 조합장에 따르면 '농업인에게 꼭 필요하고 사고 발생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손해보험'으로 추진 방향을 설정하였고, 농작물재해보험, 리치팜생활안심보험, 원패스초간편건강보험을 주력 상품으로 선정해 집중 추진했다.

특히, 2019년 9월에 출시된 리치팜생활안심보험을 전국1호로 조합장이 제일 먼저 가입하였다. 리치팜생활안심보험은 농기계사고로 인한 부상치료비, 후유장애시 생활자금지급, 농작업

중사고 배상책임금 지급등 농기계사고로 인한 보상을 중점적으로 하는 농업인 맞춤형 특화 보험이다.

또한, 각종 농작물 재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작물재해보험을 김제시와 협력하여 집중 추진한 결과 365여원을 추진하였고, 지난해 풍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가에 사고보험금으로 과수, 벼, 콩, 감자, 원예시설 등에 총 1,578백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조합원들에게 많은 보탬이 되었다.

이로 인해 조합원들은 태풍과 비바람으로 쓰러져 수확이던 벼농사로 큰 손해를 입었지만 김제시와 농협에서 지원하여 가입한 벼보험 덕분에 큰 위기를 모면하게 되어 김제시와 농협에 고마움을 전하였다. /김제=곽태 기자